

보라카이 대신 필리핀 어디 갈까? 대체 할 곳은 '세부'

휴양부터 액티비티까지 휴가의 모든 것 갖춰

세계적 휴양지인 필리핀 보라카이 섬이 26일부터 6개월간 문을 닫는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환경 복원을 위해 이 섬을 이 기간 폐쇄하는 권고안을 승인한 데 따라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필리핀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은 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탓이다. 폐쇄 기간 보라카이에서는 대대적인 도로와 상수도 시설 등 환경 정비가 펼쳐진다.

보라카이는 지난해 각국에서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은 인기 지역이다. 한국인 관광객도 약 40만명이 찾았다.

여름도 여름이지만, 한국에서는 당장 5월 어린이날 연휴(5~7일)를 이용해 부처님 오신 날 징검다리 연휴(19~22일)에 큰 부담 없이 찾을 곳이 사라진 셈이다.

필리핀 관광청이 보라카이를 대신해 갈 만한 관광지를 추천했다. 어떤 곳인지 살펴보자.

필리핀 관광청이 보라카이를 대체할 관광지로 가장 먼저 추천한 곳이 세부(Cebu)다. 하나뿐인,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국내 유명 여행사도 보라카이 대체 관광지로 이를 제일 먼저 꼽았다.

세부는 보라카이와 더불어 필리핀의 양대 관광지다. 보라카이처럼 휴양부터 액티비티까지 휴가의 모

든 것을 갖췄다. "왕과 여왕이 된 기분이 들 정도로 귀족적인 휴가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필리핀 관광청은 자신한다.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환상적인 쪽빛 해변에서 천지가 멈춘 듯 고요한 순간을 즐기다 문득 심심해지면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 해양 스포츠나 호핑투어를 하든, 스노클링 즐기면 된다.

세부는 마닐라 남쪽에서 약 587km 떨어진 비사야스 중앙에 있다. 동쪽에 레이테, 보홀 등이 있고 서쪽에 네그로스 있다. 막탄, 반타안, 카모테스섬 등 크고 작은 섬 167개를 거느린다.

세부는 스페인이 필리핀에 진출해 처음 거주지로 삼은 곳이다. 덕분에 세부는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과 명소 등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필리핀항공, 세부퍼시픽 등이 인천공항과 세부 막탄공항 구간에서 직항편을 운항한다.

다음은 세부의 대표 관광지다.

0...라푸라푸 사원

1521년 긴 항해 끝에 세부섬에 상륙한 마젤란은 같은 해 막탄섬에 건너와 가톨릭을 포교하려 하였으나 추장 라푸라푸의 저항을 받았다. 전투 끝에 마젤란은 라푸

라푸 사원이 있는 자리에서 사망한다. 마젤란 기념비는 그가 최후를 맞은 그 자리에 1866년 세워졌다. 뒤쪽에 참락지에 용감하게 저항한 라푸라푸 동상도 있다.

0...마젤란 십자가

필리핀 최초로 가톨릭 신자가 된 라자후마본 추장과 부라민이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해 마젤란이 1521년 4월에 만든 나무 십자가다. 이를 보관하기 위해 마젤라스 거리에 팔각정이 건립됐다. 팔각정 내부 천장에 그려진 벽화에는 당시 세례 의식의 풍경이 잘 드러난다. 십자가를 조금 달려 마시먼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 나무를 조금씩 떼어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는 단단한 나무로 씌워놓았다.

0...산토니오 성당

1665년 레가스피가 건립했다. 성 오거스틴 성당이라고도 한다. 마젤란이 선교 당시 왕비에게 선물로 줬다는 어린 예수상이 이곳에 보관돼 더욱 유명해졌다. 1565년 대화재를 비롯한 몇 차례 화재에도 상처 하나 없이 온전히 남아 세부의 수호성인으로 봉안다.

0...산 페드로 요새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은 스페인이 이슬람 해적 침략에 대비해 세부 항에 건설했다. 수도 마닐라의 인트라무로스와 쌍벽을 이룬다.



1738년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이곳은 필리핀의 이픈 역사가 그대로 서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스페인 통치 말기에 해당하는 1898년에는 세부 독립운동 세력에 의해 점령됐다. 미국 식민지 시대에는 군 막사로 사용됐다. 일본이 지배할 때는 포로수용소로 쓰였다.

요즘은 벽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정원과 고종스러운 옛터를 갖춰 소란스럽고 정신없는 다운타운을 벗어나 사색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0...고로르도 박물관

1850년대 필리핀에서 유명한 고

로르도가 저택을 바탕으로 한다. 건물 하단은 막탄의 산호로 만들어졌다. 건물 전체가 못 하나 박지 않고 모두 나무를 끼워 맞춰 지은 것이 특징이다. 19세기 필리핀 건축물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종교 유물·그림·안티 가구들을 둘러 볼 수 있다.

필리핀의 숨은 보석 '보홀'

10번째로 큰 섬...태풍 영향도 적어 급부상

필리핀 관광청이 보라카이를 대체할 관광지로 두 번째로 추천한 곳이 보홀(Bahol)이다.

마닐라에서 정남 쪽으로 약 700km, 세부 막탄에서는 동남쪽으로 70km 거리에 있다.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이다.

남쪽으로 만다나오 동쪽으로 레이테, 북쪽으로 코모츠 등 사면이 섬으로 둘러싸인 덕에 폭우는 물론 태풍 영향도 가장 적게 받는다. 태풍이 발생해도 순식간에 지나간다.

보홀은 과거 인접한 세부를 찾은 사람 중에도 일부만 알던 숨은 관광지였다. 그러나 최근 잘 보존된 자연의 아름다움이 입소문을 타고 여행업체가 관심을 두게 된 뒤 급부상하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 8월 필리핀 항공이 인천-보홀(타빌라란) 직항 노선을 취항하면서 한국인이 좀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세부 막탄공항에서 내려 배를 타거나 마닐라 공항에서 환승해 타빌라란 공항으로 가야 했다.



보라카이가 잠정 폐쇄된 이유가 훼손된 환경 탓이다 보니 아직 만개하지 않은 보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관광청은 "보홀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열대 천국인 동시에 볼거리, 먹거리

도 다양하고 풍성하다"면서 "필리핀 관광의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자랑했다.

다음은 보홀의 대표 관광지다.

0...초콜릿 힐

초콜릿 힐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보홀의 가장 큰 강인 로복강에서는 특별한 투어를 할 수 있다. 유람선을 타고 선착장과 폭포 사이 3km가량 되는 원시림 속을 왕복하며 맛있는 필리핀식 뷔페와 현지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로복 생태관광 어드벤처 파크에서는 오픈

보홀 관광안내서 첫 장에 등장하는 명소다. 보홀은 200만년 전 얇은 바닷속에 있다 수면 위로 솟아올라 육지가 됐다. 섬 중앙 대평원에 길이 30~50m 원추형 대리석 산 1288개가 솟아나 장관을 연출한다. 건기에 멀리서 보면 갈색의 원뿔형 모양이 '키세스 초콜릿'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초콜릿 힐'로 명명됐다.

0...로복강

초콜릿 힐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보홀의 가장 큰 강인 로복강에서는 특별한 투어를 할 수 있다. 유람선을 타고 선착장과 폭포 사이 3km가량 되는 원시림 속을 왕복하며 맛있는 필리핀식 뷔페와 현지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로복 생태관광 어드벤처 파크에서는 오픈

케이블기를 타고 강을 따라 오르내리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0...바클레온 성당

보홀 중심지인 타빌라란의 바클레온에서는 수많은 역사 유적을 볼 수 있다. 필리핀 국보 바클레온 성당. 1833년에 만들어진 바클레온 메인 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바클레온 성당은 '성모 마리아 성당'으로도 불린다. 1595년에 짓기 시작해 1727년 완공됐다.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축물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하늘을 보는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 로울리의 성 이그나티우스 유물, 물소와 양귀족에 리턴어로 적힌 성가 등 16세기 귀중한 장식물과 종교 유물이 전시된다.

뉴스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